

全羅右水使 李億祺考

李 貞 一*

- 序 言
I. 全羅右水軍의 兵力
II. 三道水軍統制使와의 關係
III. 不動의 全羅右水使
結 語

序 言

壬辰年(1592) 4月 14日 釜山에 상륙한 僕軍은 불과 18일 만인 5月 2일에는 서울을 점령하였고 같은 달 27일에는 臨津江을 건넜으며 6月 1일에는 開城에 진출하고 15일에는 平壤을 점령하였다.

실로 破竹之勢의 진격이었다.¹⁾

그동안 朝鮮軍은 이렇다 할 應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채 문자그대로 望風大潰²⁾할 뿐이었는데 이러한 初戰에서의 참패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 이 지적되고 있으나³⁾ 가장 단적인 표현은 「彼我의 戰爭準備의 差」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初戰에서 連戰連勝, 開戰 두달만에 서울·開城·平壤의 三都 를 점령한 왜장 고니시(小西行長)는 義州에 播遷한 朝鮮國王에게 글을 보내, 日本水軍 십여만이 또 서쪽 바다로 오는 중이니 대왕의 행차가 장차

* 사학과 부교수

1) 李炳錫,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1976, 上卷, p.350 參照

2) 李魯, 《龍蛇日記》, 乙酉文庫, 1974, p.67, p.108 參照.

李舜臣, 《亂中日記草》壬辰 5月初 2日

(前略)……宋漢連 自南海還言曰 南海倅(奇孝謙), 脣助項僉使(金勝龍), 尚州浦, 曲浦, 平山浦等 一聞聲息 輒已逃潰, 使其軍器等物, 盡散無餘云可愕可愕, ……」

3)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編, 1968, pp.296~297 參照

4) 崔永禱, 〈日本의 侵寇〉《韓國史》12, 國사편찬위원회, 1981, p.285 參照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⁵⁾라 하면서 크게 豪氣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니시의 이 호언장담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니 壬辰年 5月 7日의 玉浦海戰이래 大小 10여 차례의 해전에서 倭水軍은 陸軍과는 달리 朝鮮水軍에 의하여 連戰連敗당하였고 따라서 西海로의 진출은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倭水軍의 連敗는 倭軍側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예상밖의 일이었던 듯하다.

당시 우리 水軍이 한달동안에 전후 7차례 결쳐서 戰必勝하자 히데요시 (豊臣秀吉)는 6月 28일에 倭水軍將들에게 朝鮮水軍擊破의 嚴命을 下達하게 되고 初戰의 승리에 도취하여 서울에까지 진격하였던 倭水軍將 九鬼, 加藤, 脇坂 등은 서둘러서 다시 南下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釜山에 먼저 도착한 脇坂은 아직도 朝鮮水軍을 대단치 않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功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九鬼, 加藤 등을 기다리지 않고 自己隸下의 水軍만으로 朝鮮水軍을 공격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閑山島海戰의 빌단이다.

그러나 이 海戰에서 큰 타격을 받고 釜山으로 쫓겨가게 된 倭水軍은 그 이후 西海로의 진출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으며 倭軍측의 水陸併進의 기본戰略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었고,⁶⁾ 補給路를 확보할 수 없었던 倭軍으로서는 陸戰에서의 전진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다.

亂中 왕의 側近에서 領議政·都體察使, 明將接伴使 등을 歷任하며 전쟁지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柳成龍은 亂後 田園에 물러앉아 「懲前毖後」(지난 일을 경계하여 뒷 일을 삼간다)⁷⁾의 염원을 담아 집필한 懲毖錄에서 당시 朝鮮水軍의 해상권 확보를 아래와 같이 評하였다.

5) 柳成龍, 《懲毖錄》卷一

「先是 賊將 平行長 到平壤投書曰 日本舟師 十餘萬 又從西海來 未知 大王龍御 自此何之」

6) 前掲 《壬辰戰亂史》上卷 p.395 參照

7) 前掲 《懲毖錄》自序

「詩曰 予其懲而毖後患 此懲毖錄所以作也」

「(前略) 舜臣의 이 한번 싸움으로 적군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行長이 비록 平壤을 얻었으나 형세가 의로워 감히 더 나아가지 못했고 우리 국가에서는 全羅, 忠淸으로부터 黃海, 平安道의 沿海一帶를 확보하여 군량을 보급시키고 號令을 전달시키어 중홍을 이루었으며 遼東의 全州, 復州, 海州, 蓋州와 天津등 지역도 동요하지 않아 明나라 군사가 육로로 나와 적을 물리치게 된 것도 모두 이 舜臣의 한번 싸움에 이친 功이었던 것이다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리오. 舜臣이 三道水軍을 거느리고 閑山島에 주둔하여 적군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았었다.」⁸⁾

壬亂을 극복하여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며 이러한 하늘의 뜻을 실현한자는 바로 李舜臣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柳成龍의 견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왔으며 日帝侵略 이후 丹齋申采浩가 1908년에 「聖雄李舜臣」을 저술한 이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더더욱 격상되어 李舜臣은 이제 단순한英雄이 아닌 「聖雄」으로, 「民族의 太陽」으로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近代 韓國史學의 발전과 더불어 傳統史學의英雄史觀의 서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폐단이 지적된 바 있으며,⁹⁾ 새로운 시각에서 본 역사적 인물에 대한 再評價 작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¹⁰⁾ 이러한 學界의 분위기에 따라 壬亂時 朝鮮水軍의 승리에 관해서도 그 功勞를 李舜臣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의 뛰어난 戰術이외에도 朝鮮水軍의 火砲와 戰船이 倭水軍에 비하여 월등하였다는 점이 勝因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것이다.¹¹⁾

필자는拙稿「元均論」¹²⁾을 통해 李舜臣이 많은 방해꾼들과 어리석은 國

8) 前揭《慾拔錄》卷一

「(前略) 要此一戰 遂斷賊一臂 行長雖得平壤 而勢孤不敢更進 國家得保全 羅忠淸以及黃海平安 沿海一帶 調度軍食 傳通號令 以濟中興 而遼東金復海 蓋與天津等地不被震驚 使天兵從陸路來援 以致郤賊者 皆此一戰之功 嘴呼豈非天哉 舜臣因率三道舟師 留屯于閑山島 以遏賊西犯之路」

9) 全海宗〈韓國史를 어떻게 보는가〉《韓國史의 反省》新丘文化社 1973 p.8.

10) 《人物로 본 韓國史》청아出版社 1973.

李炫熙《人物韓國史》청아出版社 1986.

11) 崔永禧〈日本의 侵寇〉前揭書 p.307 參照

12) 李貞一〈元均論〉《歷史學報》89 1981.

王 및 大臣들에 의하여 龕職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때문에 정상적인 결차를 거쳐서 파직되었으며 元均과는 「爭功」하는 라이벌이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火砲와 戰船등 戰具뿐만 아니라 朝鮮水軍의 지휘관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영웅중심적인 역사서술에서 탈피하여야 할 뿐더러 인물 평가의 기준도 단순한 黑白論理에서부터 超脫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전지한 채 本稿에서는 李舜臣, 元均과 더불어 朝鮮水軍의 三大主役이라 할 李億祺에 관하여 살펴 볼으로써 그의 位像뿐만 아니라 그 좌우에 同席하였던 朝鮮 水軍諸將들의 實像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 보려고 노력하였다.

I. 全羅右水軍의 兵力

元均의 援軍요청을 몇차례나 받고 또 연이어 朝廷으로부터도 元均을 구원하여 倭寇을 치라는 명령을 받은 李舜臣이었지만¹³⁾ 당시의 豪대한 敵勢를 각종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로서는 설불리 本陣을 떠날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全羅右水使 李億祺에게도 檄文을 보내서 합세한 것을 종용하고, 그의 艦隊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다.

亂中日記 壬辰 5月 初3日條의,

(前略) 有頃鹿島萬戶請謁, 招前問之, 則右水使不來……(얼마후 녹도만호가 법기를 청하기를 불러서 물어 보니 右水使는 오지 않았다)

이라는 기록과 同書 壬辰 5月 29日 條의

13) 李舜臣《壬辰狀草》狀 4

「(前略) 今四月二十七日寅時 在鎮祇受同月二十三日 成貼宣傳官趙銘來左副承旨
(閔藩) 書狀內 倭寇既陷釜山東萊 又入密陽 今見慶尚右水使元均啓本 則率各浦舟
師下海 以爲耀兵掩擊之計 此一大機會 不可不繼其後 爾與元均合勢攻破賊船 則賊
不足平矣 故遣宣傳官馳諭 爾督率各浦兵船 急赴毋失機會 然千里之外 如或有意外
之事則不必拘此事。」

[狀 5], [狀 6], [狀 7]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晴, 右水使不來, 獨率諸將, 曉發直到露梁則慶尚右水使, 來會約處(趴음, 우수사는 오지 않고 홀로 諸將을 거느리고 아침 일찍 곧바로 노랑에 갔더니 경상우수사가 약속 장소에 왔다.)」

는 기록을 보면 당시 李舜臣이 李億祺를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다.

李億祺의 右水軍이 李舜臣, 元均의 艦隊와 합류하게 된 것은 6月初 4일이었다.

「정오경에 右水使가 諸將들과 함께 뜻대로 드높이 도착하니 一陣 將士들이 모두 기뻐 뛰지 않는 자가 없었다.」¹⁴⁾

는 것이다.

그 후의 李億祺는 〈표 1〉 [壬亂中重要海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海戰에 참여하였고 漆川梁海戰에서 전사할 때까지 그가 이룩한 戰功

〈표 1〉 壬亂中 重要海戰

海戰	日時	參 加 兵 力		備考
		我軍	敵軍	
1. 王浦海戰	壬辰 5月 7日	李舜臣 元均	約 50隻	約 50隻 〈壬辰戰亂史〉 p. 287
2. 合浦海戰	"	"	約 5隻	同上 p. 291
3. 赤珍浦海戰	壬辰 5月 8日	"	約 13隻	同上 p. 294 李舜臣, 嘉善大夫
4. 泗川海戰	壬辰 5月 29日	李舜臣 元均	… 26隻	約 13隻 同上 p. 309
5. 唐浦海戰	" 6月 2日	"	約 21隻	同上 p. 314
6. 第一次 唐項浦海戰	" 6月 5日 ~6日	李舜臣 ²³⁾ 李億祺 ²⁵⁾ 元均 3)	總51隻	約 26隻 同上 p. 316 李舜臣·資憲大夫 ※元均, 奇孝謹 敵首級 50齒獲
7. 栗浦海戰	壬辰 6月 7日	"	約 7…	同上 p. 319

14) 李舜臣 《亂中日記草》壬辰 6月初 4日
「(前略) 日午右水使領諸將 懸帆而來 一陣將士 無不踴躍」

海 戰	日 時	參 加 兵 力		備 考
		我 軍	敵 軍	
8. 閑山島海戰	壬辰 7月 8日	李舜臣 40 李億祺 25 元均 7	總 72 隻 約 70 隻	同上 p. 394 李舜臣 - 正憲大夫 李億祺 - 嘉義大夫 元均
9. 安骨浦海戰	壬辰 7月 10日	"	約 40 隻	同上 p. 400
10. 釜山浦海戰	壬辰 9月 1日	李舜臣 · 李億祺 元均 約 166 隻 (板屋船 74, 狹船 92)	約 430 隻	同上 p. 508
11. 熊川海戰	癸巳 2月 1日 ~ 3月 8日	李舜臣 · 李億祺 元均		同上 p. 712
12. 第二次 唐項浦海戰	甲午 3月 4日	李舜臣 · 李億祺 元均 約 60 隻	約 40 隻	同上 p. 808
13. 第一次 長門浦海戰	甲午 9月 29日	李舜臣 · 元均 約 50 隻		同上 p. 813 敵陸 地에 흥기 不應戰
14. 永登浦海戰	甲午 10月 1日	"	兵力 約 6,000	同上 p. 816
15. 第二次 長門浦海戰	甲午 10月 4日	"		"
16. 漆川浦海戰	丁酉 7月 14日 ~ 16日	三道水軍 約 100 隻	約 600 隻	同上 p. 991 元均 李億祺 · 崔湖戰死
17. 鳴梁海戰	丁酉 9月 16日	13 隻	約 330 隻	同上 p. 1,032
18. 露梁海戰	戊戌 11月 9日	三道水軍 明水軍 約 500 隻 水兵 約 15,000	約 500 隻 水兵 約 12,000	同上 p. 1,117

은 多大한 것이었다.

특히 그의 全羅右水軍은 병력에 있어서 三道水軍중 으뜸이었던 듯 하다.
물론 제도상으로 보장된 병력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倭敵의 기습을 정면으
로 받고 화살 한대도 쏘아보지 못하고 溃滅된 慶尚左水軍이나¹⁵⁾ 그 임첩

15) 《宣祖實錄》卷 27, 宣祖 25年 壬辰 6月 丙辰
「前略 左水使朴泓 不發一矢 首先棄城」

〈표 2-1〉 三道水軍 指揮官 및 臨地

〈經國大典 卷 4 兵典 參照〉

	忠 清	慶 尚 左	慶 尚 右	全 義 左	全 義 右	卑 正
水軍節度使 (正三品)	1(保寧)	1(東萊)	1(巨濟)	1(麗水)	1(海南)	※各道觀察使 를 제의한수
水軍僉節制使 (從三品)	2(所斤浦 鎮馬梁鎮)	1(釜山浦鎮)	1(齊浦鎮)	1(蛇渡鎮)	1(臨淄島鎮)	
水軍虞侯 (正四品)	1(保寧)	1(東萊)	1(巨濟)	1(麗水)	1(海南)	※虞侯는 水使보좌 관
水軍萬戶 (從四品)	3(唐津浦, 波知島, 舒川浦)	10(豆毛浦, 甘浦, 海雲 浦, 包伊浦, 漆浦, 烏浦, 西生浦, 多 大浦, 鹽浦, 丑山浦)	9(玉浦, 平 山浦, 知世 浦, 永登浦, 蛇梁唐浦, 赤梁助羅 浦, 安骨浦)	7(會寧浦, 達梁呂島, 馬島, 鹿島, 鉢浦, 突山 浦)	8(黔毛浦, 木浦, 法聖 浦, 多慶浦, 於蘭浦, 群 山浦, 南桃 浦, 金甲島)	

※ ()은 臨地

〈표 2-2〉 三道 水軍의 戰船 및 兵力

〈經國大典 卷 4, 兵典參照〉

	忠 清	慶 尚 左	慶 尚 右	全 義 左	全 義 右	卑 正
大猛船	11(880)	8(640)	12(960)	9(720)	13(1,040)	大猛船 탑승인원 (水軍 80人)
中猛船	34(2,040)	22(1,320)	44(2,640)	23(1,380)	20(1,200)	中猛船 탑승인원 (水軍 60人)
小猛船	24(720)	59(1,770)	46(1,380)	16(480)	17(510)	小猛船 탑승인원 (水軍 30人)
計	69(3,640)	89(3,730)	102(4,980)	48(2,580)	50(2,750)	

※ ()은 兵力

지역에 있으면서 역시 기습의 餘震으로 흩어진 군사를 모으기 위해 급급했던
慶尚右水軍¹⁶⁾에 비하면 全羅道의 左·右軍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戰列
을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¹⁷⁾ 자리적으로 倭軍의 侵攻로에서 멀리 떨어져

16) 《宣祖修正實錄》 卷 26, 宣祖 25年

「雲龍抗言曰……(中略)……今吾衆雖散猶可保聚 湖南水軍 可請來援也」

17) 李舜臣 《亂中日記》 壬辰 5月 初 3日

「(前略) 是曰 呂島水軍 黃王千 聞賊聲逃避于其家 捕來斬首梶示」

《壬辰狀草》 [狀 4], [狀 5], [狀 6], [狀 7]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조정의 출격
명령은 4월 27일에 받고도 출전준비 때문에 5월 4일에야 出陣하고 있다.

〈표 3-1〉 地方別 水軍將 配置一覽表

〈大典會通 卷 4, 兵典參照〉

道別 外官職	京	忠	慶	尚	全羅		黃	江	咸	平	摘要	
	畿	清	左	右	計	左	右	計	海	原	鏡	
水軍統制使	1	0		1	1			0	0	0	0	從三品, 京畿는 統禦使江華守兼, 慶尚은 統制使
水軍節度使	2	2	1(1)	3	1	1	3	2	1	3	1	正三品, 一은 觀察使兼京畿, 二은 統禦使外兼
中軍	1	0		1	1			0	0	0	0	正三品堂上(京畿)從二品(慶尚)
虞侯	0	1		1	1	1	1	2	1	0	0	正三品堂上(慶尚)從四品全羅(左右道)正四品(忠清)
僉節制使	3	4	2	2	4	1	6	7	2	1	0	6 從三品
同僉節制使	2	0	1	1	2	1	2	3	4	0	0	從四品
萬戶	1	1	4	11	15	4	11	15	1	1	1	0 從四品

〈표 3-2〉 三道水軍의 戰船 및 兵力

	忠清道	慶尚左	慶尚右	全羅左	全羅右	司立
大猛船	11(880)	8(640)	12(960)	10(800)	12(960)	水軍 80人
戰船	9(720)	15(1,200)	40(3,200)	19(1,520)	28(2,240)	"
龜船	1(80)	3(240)	6(480)	1(80)	2(160)	"
中猛船	34(2,040)	22(1,320)	44(2,640)	23(1,380)	20(1,200)	水軍60人
防船	21(1,260)	—	2(120)	1(60)	10(600)	"
小猛船	24(720)	59(1,770)	46(1,380)	16(480)	17(510)	水軍30人
兵船	20(600)	19(570)	47(1,480)	21(630)	30(900)	"
計	120(6,300)	126(5,740)	197(10,260)	91(4,950)	119(6,570)	

※ () 안은 兵力.

〈大典會通 卷 4兵典參照〉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의 〈표 2-1, 2〉와 〈표 3-1, 2〉 및 아래의 〈표 3-3〉을 비교해보면 經國大典이 편찬될 당시의 兵力 배치와 大典會通 편찬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대 상황의 变遷에 따른 당연한 對應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리고 미증유의 國難을 당했던 당시에는 戰爭 상황의 추이에 따라 그

〈茲 3-3〉 水軍管轄區域一覽表

〈大典會通 卷 4 兵典 參照〉

三道統禦使——兼京畿水使(喬洞)

德浦僉使 花梁僉使 注文島僉使 德積僉使 長峰萬戶

三道統制使——兼慶尚右水使(固城)

晋州牧 巨濟府 昌原府 金海府 河東府 昆陽郡 固城縣 南海縣 鎮海縣
 泗川縣 熊川縣 加德僉使 彌助項僉使 龜山僉使 赤梁僉使 助羅浦僉使
 永登浦萬戶 唐浦萬戶 安骨萬戶 肇浦萬戶 玉浦萬戶 知世浦萬戶 加背梁萬戶
 蛇梁萬戶 平山浦萬戶 天城萬戶 南村別將 新門別將 長木浦別將 晴川別將
 舊所非別將 贈津別將 栗浦權管 三千權管

忠清道水使(保寧)

洪州牧 沔川郡 瑞山郡 舒川郡 林川郡 韓山郡 泰安郡 庶仁縣 藍浦縣
 保寧縣 結城縣 海美縣 唐津縣 安興僉使 平薪僉使 所斤僉使 馬灘僉使
 舒川浦萬戶

全羅道左水使[順天, 梧桐浦, (麗水)]

順天府 長興郡 樂安郡 興陽縣 光陽縣 實城郡 防踏僉使 蛇渡僉使
 呂島萬戶 鹿島萬戶 鉢浦萬戶 會寧浦萬戶 古突山別將

全羅道右水使(海南)

羅州牧 靈巖郡 珍島郡 靈光郡 海南縣 濟安縣 咸平縣 法聖僉使
 群山僉使 古群山僉使 蝦島僉使 臨淄僉使 古今島僉使 加里浦僉使
 南桃浦萬戶 金甲島萬戶 於蘭萬戶 梨津萬戶

薪智島萬戶 馬島萬戶 木浦萬戶 多慶浦萬戶 智島萬戶 苓子島萬戶

黔毛浦萬戶 黑山島別將 格浦別將

慶尚道左水使(東萊)

蔚王府 機長縣 盡山僉使 多大浦僉使 西生僉使 開雲浦萬戶 豆毛浦萬戶
 西平萬戶 包伊萬戶

黃海道水使(甌津所江鎮)

海州牧 豊川府 長淵府 延安府 安岳郡 白川郡 殷栗縣 長連縣 康翎縣
 白翎僉使 登山僉使 椒島僉使 許沙僉使 龍媒僉使 吾父浦僉使 助泥萬戶
 甌津別將

平安道防禦使(安州)

老江僉使 廣梁僉使

더한 변화는 더욱 빈번하고 급격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丙午 兵使의 지휘하에 있던 해변지역의 兵權이 언제부터 水使에게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낱 한시에 어떤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舟師 屬邑守令들을 水戰에 專屬토록 해 달라는 李舜臣의 狀啓와¹⁸⁾ 水使의 守令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시켜 달라는 元均의 狀啓를¹⁹⁾ 보면 倭亂을 치루는 동안에 水使 등 전투 지휘관들의 권한이 확대되어 갔을지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는 위의 〈표 2-2〉, 〈표 3-2〉에서 朝鮮水軍의 병력 배치 編制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壬亂당시의 兵力은 물론 이러한 編制와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은 兵役制度의 解弛²⁰⁾ 내지는 轉換期²¹⁾로서 변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조차 없는 最惡의 상황이었던 것이다.²²⁾

編制上으로는 각 道에 모두 水軍이 있었으나 앞에서 지적한바대로 상황이 크게 바뀌다보니 실제로 戰役에 참가하여 倭水軍을 격파한 水軍部隊는 慶尚右水軍과 全羅左·右水軍 그리고 忠淸水軍 뿐이었으며 이 水軍들을 합쳐서 癸巳年 8月 이후에는 三道水軍統制使 磨下에서 일원적인 지휘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케 했던것이고 이러한 三道水軍의 戰備가 그런대로 가장 확충되었던 때라고 생각되는 시기의 朝鮮水軍 병력을 알려주는 자료가 宣祖 30年 5月에 올린 體察副使 韓孝純의 狀啓인데 그 내용을 보면 三道水軍의 戰船이 134隻이고 格軍이 13,200여명이라는 것이다.²³⁾

이 數와 〈표 2-2〉, 〈표 3-2〉에 나타나는 數와의 상관관계는 정확히 알

18) 李舜臣 《壬辰狀草》 [狀 27] (請舟師屬邑守令專屬水戰狀)参照

19) 《宣祖實錄》卷 38, 宣祖 26年, 癸巳 5月 癸未

「備邊司啓曰 伏見慶尚右水使 元均狀啓 守令以水使 非節制之官 九所號令全不聽從 云 目今綱紀解弛 爲將者 不能措手足 始依狀啓通訓以下守令 分輕重自斷治罪 上從之」

20) 崔永禧 前揭書 p.278 參照

21) 姜萬吉 〈韓國史의 觀點 —16세기의 변화와 임진왜란의 의의〉, 《韓國史의 反省》 新兵文化社, 1973, p.41 參照.

22) 崔永禧 前揭書 p.279 參照.

23) 《宣祖實錄》卷 88, 宣祖 30年 丁酉 5月 癸卯

「體察副使 韓孝純馳啓 大概 三道戰船在陣中者 一百三十四隻 格軍 一萬三千二百餘名 云」

수가 없고 다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全羅水軍의 數가 慶尚水軍의 數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았겠는가를 推論할 수 있을 뿐이다.

II. 三道水軍統制使와의 關係

前揭拙稿「元均論」에서 李舜臣과 元均이 심한 「爭功」의 라이벌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²⁴⁾ 당시의 朝廷重臣들도 이점을 究知하고 있었으며 또한 매우 염려하여서 御命으로서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까지 하였던 것이다.²⁵⁾ 이들 두 武將의 다툼은 戰果報告를 올리는데서부터 출발하였던 것 아니 宣祖修正實錄에 보면

「처음에 元均이 李舜臣의 援兵을 請하여 敵을 격파하였을 때 聯名으로 狀奏 할 것을 바라니 李舜臣이 ‘친친히 하자’ 해 놓고 밤에 元均이 失軍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며 적을 격파하는데도 功이 없음을 仔細히 갖추어 보고하니 元均이 듣고 크게 感情을 가졌다. 이로부터 이들은 각각 따로 보고를 올렸고 兩人の 간격이 이로부터始作되었다.」²⁶⁾

이라하여 두 사람 사이에 「爭功」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두 武將간의 不和는 李舜臣이 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되자 더욱 심하여져서 급기야는 元均을 忠淸兵使로 轉出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⁷⁾

여기서 三道水軍統制使를 임명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살펴 보면, 李忠武公神道碑에

24) 李貞一, 前掲書 p.114 參照

25) 《宣祖實錄》卷 58, 宣祖 27 年 12 月 壬戌

「司諫院 啓曰……(中略)……或者以爲 李舜臣 元均 俱以一時名將 不相協和 勢難兩存 此不思之甚也 均與舜臣 功同賞異 均不能自快於心 管下將士各自左右之 爭相偶語以排其 霽遂至相激耳 若朝廷責以大義 使之各自惕慮則渠亦知先公後私之義…」

26) 《宣祖修正實錄》卷 26, 宣祖 25 年 6 月 朔 己丑
「初元均 請舜臣援兵敗賊 欲聯名狀奏 舜臣曰 且徐之 乃夜 自具狀奏 備陳均失軍無依 擊賊無功之狀 均 聞之大憾 自此各狀奏功 兩人構隙自此始。」

27) 《宣祖修正實錄》卷 28, 宣祖 27 年 12 月 甲辰
「以慶尚右水使元均 移拜忠淸節度使 均恥爲舜臣次將 不受節制 舜臣累狀辭免」

「公이 鎮을 한산도로 옮겨 兩道(경상전라)를 管掌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조정에서 허락하고 마침내 水軍統制使職을 설치하여 公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였다. 統營은 이렇게 시작되었다.」²⁸⁾

이라한 기록과 宣祖修正實錄의

「李舜臣으로 三道水軍統制使를 겸하게 하였다. 本職은 朝議에서 三道水使가 서로 잘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特히 統制使를 두어 主將을 삼자는 論議에 문에 생긴 것이다.」²⁹⁾

이라는 기록을 보면 먼저 李舜臣이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 조정에서 三道水軍統制使職을 制定하고 李舜臣을 그 職에 임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자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兩人의 不和는 더욱 심해지고 元均이 忠淸兵使로 轉出되었지만 그후에도 두사람을 에워싼 爭功의 집단화 현상은 朝鮮水軍指揮部에 심각한 문제점을 胚胎하게 하였던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李舜臣과 元均이 不和하고 있을 때 李億祺는 과연 어찌 하였는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全羅右水軍의 兵力은 他道水軍의 그것보다 앞서 있었다. 그렇다면 慶尚右水軍은 말할 것도 없고 全羅左水軍보다도 戰果가 못하지 않았을텐데 왜 李億祺의 戰功은 그렇게 두드리지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³¹⁾

조정을 속이고 君命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李舜臣을 파직시키려 할 때의 어전회의에서는 당연한 순서로 후임자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충신들은 元均을 추천하고 있으며 李億祺는 어떤가 하는 물음에도 李

28) 李忠武公神道碑

〔前略〕公請移鎮閑山控制兩道朝廷許之遂置水軍統制使使公兼領統營之設始此」

29) 《宣祖修正實錄》卷 27, 宣祖 26年 8月 朔

〔前略〕以舜臣兼三道水軍統制使本職如故朝議以三道水使不相統攝特置統制以主之」

30) 李貞一, 前揭書, p.127 參照。

31) 《宣祖實錄》에 記錄되어 있는記事의 量도 李舜臣, 元均에 비하면 훨씬 적다. (예약 李舜臣의 1/7, 元均의 1/3에 해당된다)

億祺보다는 元均이 낫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³²⁾

그 이외에도

「元均과 李舜臣의 海上之功이 權慄보다 輝센 위다.(元李海上之功 固優於權慄)」³³⁾

등의 기록을 보면 李億祺는 그가 참여한 물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생전부터의 평가가 사후에까지 그대로 연장되어 李舜臣과 元均은 宣武一等功臣이 될 때 二等功臣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의 假說을 想定해 보고자 한다. 첫째, 李億祺는 元均과 달리 독자적인 戰果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독자적인 狀啓를 여러 번 올렸다면 그에 관한 기록이 宣祖實錄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상당히 비중이 큰 水使였고, 그 보다도 輝센 微官末職에 있는 사람들의 狀啓나 上疏 등도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의 假說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李億祺가 元均과는 달리 李舜臣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후일 李舜臣이 서울로 잡혀 올라가 조사를 받을 때 그는 李恒福, 金命元에게 서신을 보내어 李舜臣의 무죄를 극구 변호하였다.³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李舜臣의 亂中日記草를 살펴보아도 분명하다. 李舜臣이 元均의 못마땅한 점을 지적한 것이 수십 차례임에 비하여 李億祺의 잘못을 지적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³⁵⁾

이렇게 볼 때, 李舜臣과 李億祺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따라

32) 《宣祖實錄》卷 84, 宣祖 30 年 丁酉 正月 戊午條 參照。

33) 《宣祖實錄》卷 175, 宣祖 37 年 甲辰 6 月 庚子條 參照。

34) 洪貞弼, 《梅山集》参照。

35) 《亂中日記》의 記錄을 살펴보면 元均을 비난하는 대목이 20餘回에 걸쳐 나오고 있다.

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狀啓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李億祺가 李舜臣의 편에 서서 元均과 不和하였다는 혼적도 빨간 되지 않는다.

후일 漆川梁海戰에서 戰死하기 직전

「(前略), 李億祺, 崔湖 등이 조정에서 억지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말하기를 ‘명령을 어긴즉 우리 3인이 죽을 것이고, 명령을 따르면 나라를 유퇴해 할터이니 어찌면 좋으냐’ 하였다 한다.³⁶⁾

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忠君愛國하는 세사람의 武將이자 後人 들이 애써 강조하려고 하는 派爭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李億祺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上司의 명령에 충실한 武將이었다는 평범한 결론을 얻었지만 대체로 첫번째의 가설, 즉 李億祺 가 독자적인 戰果보고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는 공정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假說, 즉 처음부터 李億祺는 李舜臣의 주도하에 충실한 次將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겠다.

「李舜臣이 드디어 援兵을 내어 巨濟 앞바다에서 元均과 만났는데 元均이 李雲 龍과 禹致績으로 先鋒을 삼았다. 王浦에 이르러 敵船 30隻이 있는지라 진격하여 크게 무찌르니 납은 敵이 물에 올라 탈아났다.」³⁷⁾

라는 宣祖修正實錄의 기록중 「元均이 李雲龍과 禹致績으로 先鋒을 삼았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戰場이 慶尚右水軍관할 지역이고, 李舜臣은 援兵次

36) 《宣祖實錄》卷 133, 宣祖 39年 申丑 正月 丙辰
「(前略) 後聞 李億祺, 崔湖等 聞朝廷使之促入 相與言曰 違命則吾三人死入去則辱國非細云」

37) 《宣祖修正實錄》卷 26, 宣祖 25年 壬辰
「(前略) 遂會均於巨濟前洋 均使雲龍致績 爲先鋒 到玉浦 遇倭船三十隻 進擊大波之 餘賊登陸而走」

온 客將이 다보니 元均이 主將으로서의 作戰指揮權을 行使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³⁸⁾ 이러한 생각과 앞에서도 引用한

「처음에 元均이 李舜臣의 援兵을 청하여 적을 격파하였을 때 聯名으로 狀奏할 것을 바라니 …(中略)…兩人의 간격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³⁹⁾

라는 宣祖修正實錄의 기록과 역시 앞에 인용한 宣祖修正實錄의

「李舜臣으로 三道水軍統制使를 삼았다…(中略)…서로 잘 협조가 되지 않기 때 문에 …(後略)」⁴⁰⁾

라는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元均과 李舜臣은 서로 指揮權을 다투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다툼의 根底에는 李舜臣에게 속아서 功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은 선배이면서도 그의 지휘밑에 있게 된 元均의 분한 감정이 짙게 깔려 있었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李億祺에게는 이러한 불만의 요소가 자라날 素地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여진다.

〈표 4〉 兩道 水使의 개인별 비교⁴¹⁾

편제상서열 ⁴²⁾	경상좌수사	경상우수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임난발발시의 水使	박 홍	원 훈	이 순신	이 역기
생 물 연 대	(1534~1593)	(1545~1598)	(1540~1597)	(1561~1597)
부 임 년 도	?	1592	1591	1592

위의 〈표 4〉 [兩道 水使의 개인별 비교]에서 보듯이, 李億祺는 朴泓이나 元均, 李舜臣에 비해 볼 때는 무려 20여년이나 짧다. 이렇게 짧은 나아로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水使가 될 수 있었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

38) 李貞一 前揭書 pp. 101~103 參照

39) 註 (26)과 同

40) 註 (29)와 同

41) 《經國大典》과 《宣祖實錄》參照。

42) 《經國大典》등에 보이는 편제상의 서열이기도 하며 對倭防守의 概念上으로도 이러한 서열이 타당할 것 같다.

문이 남지 만⁴³⁾ 여하간 그러한 연령의 차이, 서열상의 차이도 있는데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서는, 그는 초기 海戰 즉 앞의 〈표 1〉〔壬亂中重要海戰〕에서 보듯이 1차 玉浦海戰에서 5차 唐浦海戰에 이르는 초기 海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⁴⁴⁾ 李舜臣과 元均이 功을 경쟁하고 指揮權을 나누는 때에도 그는 한결음 뒤에 서서 그들의 지휘를 甘受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사료된다.

또 宣祖實錄의

「李億祺는 全羅水使로서 비록 처음의 海戰에는 不參하였지만 그후에는 始終同參하였으니 …(後略)」⁴⁵⁾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亂後의 功臣策定때에도 초기 海戰의 불참이 커다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과 李億祺가 연합함대에 합류했을 당시에 李舜臣은 이미 초기 海戰의 공로로 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례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III. 不動의 全羅右水使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李舜臣·元均의 합데보다도 더 많은 명력을 가지고 참전하였지만 초기 海戰의 불참이 李億祺의 공적평가에서는 결정적인 감점요인이 된 것 같다.

그리나 壬亂 水戰의 各道 水使들이 한결같이 자리바꿈을 한것에 비추어 보면 李億祺야 말로 不動의 全羅右水使였다. 李億祺는 1592年 全羅右水使에 임명된 이래 1597年 漆川梁海戰에서 戰死할때까지 한번도 직책을 바꾼

43) 李舜臣이 32세에 武科에 급제한 것에 비하던 李億祺는 17세에 司僕寺內乘에 임명되고 있으나 李億祺는 일찍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다.《梅山集》参照

44) [표 1] 壬亂中 重要海戰 參照

45) 《宣祖實錄》卷 159, 宣祖 36年 癸卯 2月 己亥

「李億祺 以全羅水使 雖不參 於初頭一處之戰 而其後始終同參」

적이 없었던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전쟁준비의 차떼문에倭軍의 銳鋒을 막을 길이 없다보니 巨鎮의 名官들이 다투어 도주하고 백성들도 모두 산간으로 피난하여 城과 邑이 모두 空城空虛邑이 되는 상황은 당시 慶尚右道招諭使金誠一을 隨行, 慶尚道 각지를 巡廻하며 의병을招募하면 李魯의 龍蛇日記 끗곳에 記述되어 있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다보니 전쟁에 투입하여야 할 人員과 物資가 다같이 困乏하였을 것임은 不間可知의 사실이며 조정의 전쟁지도에 있어서 臨機應變式의 人事移動과 朝令暮改式의 施行錯誤가 許多하였을 것임도 짐작할만하다.

그리면 여기에서 各道水使들의 任免交替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慶尚左水軍은 開戰초기에 화살 한대도 쏘아보지 못하고 자멸하였으며⁴⁷⁾ 당시의 水使 朴泓은 곧바로 義州 行在所에 이르러 敗軍한 죄를 용서받고는 大同江 방어를 위한 中衛將에 임명된다.⁴⁸⁾

그후 李守一과 李雲龍등이 慶尚左水使에 임명되었으나⁴⁹⁾ 주둔지가 長鬱縣海口로 되어있고 戰船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⁵⁰⁾이외에도 그후의 해전기록에 慶尚左水使나 左水軍의 활약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합함대의 일원으로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투기능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 같고 이와 같이 慶尚左水軍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까지도 끝내 재건되지 못했던 것은 左水軍의 본거지이어야 할 慶尚左道 海岸 일

46) 註 (2)와 同

47) 註 (15)와 同

48) 《宣祖實錄》卷 191, 宣祖 38年 乙巳 9月 己亥條 參照

49) 정확한 任免일자는 알 수 없으나 李守一是 宣祖 27年, 李雲龍은 宣祖 30년에 慶尚左水使職에 있었다.

50) 李炳錫 前揭書 下卷 p. 1704 〈附表〉第19 我軍兵力配置一覽表 參照

51) 《亂中日記》癸巳 9月 20日 辛亥條에 보면 「晴 元水使又來 督往永登 可謂兇矣 其所領二十五船 云云」이라 하여 元均이 거느리는 慶尚右水軍은 병력이 25隻이라 하였으니 당시 일내에 상당히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도 僉軍들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不可抗力이었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慶尚左水使의 任免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 慶尚右水使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元均과 李舜臣의 不和 때문에 元均을 忠淸兵使로 전출시키고 후임으로 裴楨을 임명하였던 것이다.⁵²⁾

그러나 李舜臣이 파직되고 元均이 후임 統制使로 임명될 때 慶尚右水使도 교체되었다. 즉 元均은 慶尚右水使과 慶尚道統制使로 임명되었던 것이다.⁵³⁾

다시 말해서, 元均은 原隊復歸를 한 셈이다. 단순한 原隊復歸가 아니라 4年前 李舜臣과의 爭功에 져서 忠淸兵使로 전출될 때와는 서로 위치가 바뀐 풀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元均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도 事必歸正의 귀결이 있을런지 모른다.

이때 全羅左水使가 새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李舜臣이 宣祖 30年 2月에 잡혀가고⁵⁴⁾ 다시 復職되는⁵⁵⁾同年 7月까지 6개월간의 공백기 간중 누군가가 全羅左水使職에 임명되었거나 또는 그 職을 대행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宣祖實錄의記事를 검토해 보면 李舜臣이 拿捕되어 가기 전에는 元均이 慶尚右水使과 慶尚道統制使로 임명되었다가 李舜臣이 拿捕되어 간 후에는 李舜臣의 직책인 全羅左水使과 三道水軍 統制使職을 代행했던 것 같다. 따라서 慶尚右水使職은 그전대로 裴楨이 계속해서 수행했던 것

52) 《宣祖修正實錄》卷 28 宣祖 27年 12月 甲辰

「以慶尚右水使元均 移拜忠淸節度使 均恥爲舜臣次將 不受節制 舜臣 累狀辭免」

53) 李貞一, 前揭書 p.116 參照

54) 《宣祖實錄》卷 85, 宣祖 30年 丁酉 2月 丁卯

「傳于金弘微曰 李舜臣拿來時 以宣傳官標信及密符給送拿來 而元均交代後拿來事言送」

55) 《宣祖實錄》卷 90, 宣祖 30年 丁酉 7月 辛亥

「以趙懾爲司諫院正言 李舜臣爲全羅左道水軍 節度使燕慶尙全羅忠淸三道統制使 檄後爲忠淸道水軍節度使」

이 아닙가 한다.⁵⁶⁾

全羅左水使와 全羅右水使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이고, 忠淸水使는 亂勃發時의 具思稷으로부터 李純信, 李繼勛, 宣居怡, 崔湖 등로 이어지는데 정확한 任免日字와 교체동기는 분명치 않다.⁵⁷⁾

이상에서 우리는 各道 水使들의 交替狀況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壬亂 水戰의 三大主役은 역시 李舜臣, 元均, 李億祺라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할 것이다. 李億祺가 없는 全羅右水軍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元均이 없는 慶尚右水軍⁵⁸⁾이나 李舜臣이 없는 全羅左水軍⁵⁹⁾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李億祺는 壬亂 水軍의 三大主役중의 하나이면서도 초기 海戰의 불참이 결정적 減點原因이 되어서 李舜臣과 元均이 宣武一等功臣으로 策定될 때 李億祺는 二等 功臣으로 策定되었던 것이다.

처음 功臣 策定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亂 3年 후인 宣祖 34年 3月부터였는데 이것이 완결된 것은 宣祖 37年 10月이니 차그마치 3年 8個月이나 결린 難產이었다. 그 동안에 功臣都監, 軍功廳, 賓廳 等에서는 「功을 論하여 等級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일이다. 實績과 公議에 따라서 一毫의 私心도 없이」⁶⁰⁾ 數十次의 회의를 거쳤고 그러는 동안에 功臣의 稱號와 數 및 序列이 몇 번이나 뒤바뀌기도 했다.

宣武功臣을 처음에는 征倭功臣이라 稱하였다가 후일 宣武功臣으로 바꾸

56) 이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 이었던 것 같다.

57) 이들의 任免日字도正確치 않으나 具思稷은 甲午年, 李純信은 甲午年, 李繼勛은 乙未年, 宣居怡은 乙未年, 崔湖는 丁酉年에 각각 記錄이 보인다.

58) 李貞一, 前揭書 pp.110~112. 參照

元均 전출후 海戰이 급격히 줄어서 朝廷에서는 李舜臣에게 御使를 파견하여 督戰한 것이 여러번이다.

59) 李貞一, 前揭書 p.121 參照

漆川梁 敗戰時의 全羅左水軍의 역할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의문이 많다.

60) 《宣祖實錄》卷 165, 宣祖 36年癸卯 8月庚子

「功臣都監 啓曰 諭功等第 乃國家莫重之事 取捨之間 自有實績 自有公議一毫無所歛 於心 然後自顧無悔吝而不參者 亦辭矣」

〈표 5〉 宣 武 功 臣

一等(3人)	李舜臣(海豐府院郡), 權慄(永嘉府院君), 元均(原陵君)
二等(5人)	申點(平城府院君), 權應銖(花山君), 金時敏(上津君), 李廷醜(月川君), 李億祺(完興君)
三等(10人)	鄭期遠(遠城君), 權快(吉昌君), 柳思瑗(文興君), 高彥伯(齊興君), 李光岳(廣南君), 趙敬(豐壤君), 權俊(安昌君), 李純信(完川君), 奇孝謹(皆伯君), 李雲龍(息城君)

있고 처음에는 26人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나중에 〈표 5〉[宣武功臣]에서 보는 것처럼 18人으로 결정된 것이다.⁶¹⁾

이같은 過程을 거치는 동안에 李億祺는 功臣候補에서 제외될뻔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초기 海戰을 제외한 나머지 海戰에 始終 참전하여 多大한 戰功을 세웠음이 인정되어 二等功臣으로 策定, 完興君에 策封되고 兵曹判書에 追贈되었으며 順天의 忠愍祠에 李舜臣과 함께 祭享되었다.

그리고 후일, 英祖때에는 그의 7代孫이 忠議之士의 後孫이라 하여懿昭墓守衛官으로 特採되었으며⁶²⁾ 또 正祖때에는 故愍이라는 諡號가 追贈되었는데⁶³⁾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忠直하였던 그의 人品과 功蹟이 더욱 더 귀하게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 《宣祖實錄》卷 175, 宣祖 37年 甲辰 6月 甲辰

「大封功名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 被者 爲扈 聖功臣 分爲三等 訸號有差(中略)
其宣武一等 李舜臣 權慄 元均 三大將 爲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二等 申點 權應銖 金時敏 李廷醜 李億祺 爲効忠仗 義協力宣武功臣 三等鄭期遠 權快 柳思瑗 高彥伯 李光岳 趙敬 權俊 李純信 奇孝謹 李雲龍 爲効忠仗義宣武功臣 各 賜爵封君凡十八人。」

62) 《英祖實錄》卷 96, 英祖 36年 庚辰 7月 丙午

「上 御春塘臺試士 上曰 今日帳殿 忠義二人 一則靖國功臣柳洵十代孫 一則壬辰效節人李億祺七代孫也 懿昭墓守衛官二策 並令特差」

63) 《正祖實錄》卷 17 正祖 8年 甲辰 閏 3月 辛酉

「金燈啓言 壬辰之亂 全羅右水使李億祺殲賊之功 亞於李舜臣 當時既贈本兵之長 追後又享忠愍之祠 而尚闕易名之典 請特許賜諡 從之」

《正祖實錄》卷 25, 正祖 12年 戊申 4月 戊戌

「贈諡延安君 李淑琦靖襄 贈左贊成洪景輔忠獻 海安君嶠靖僖 完興君李億祺毅愍吏曹判書朴仲林文愍……」

結語

開戰 2개월여 만에 三都(서울·開城·平壤)를 빼앗기는 참패의 국면에서 起死回生하여 戰勢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朝鮮水軍이 南海上에서 連戰連勝 制海權을 완전 장악함으로써 倭軍의 補給路를 차단하고 兩湖의 곡창지대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偉業을 이룩한 朝鮮 水軍의 주역은 全羅左水使겸 三道水軍 統制使 李舜臣과 麋尚右水使 元均 그리고 全羅右水使 李億祺이 있다.

이들 중 李舜臣과 元均은 서로 功을 나누면 나머지 水軍 指揮部에 不協 和音을 만들어 내므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李億祺는 序列上의 선배 또는 職策上의 上司인 이들에게 충실했 협조자 내지는 次將으로서 처신하여 이들과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맺었으며 자신의 職責도 변함없이 유지하여 他道의 水使들이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번번히 교체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⁶⁴⁾

따라서 李億祺의 功績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三道 水軍중 가장 많은 兵力を 가장 안정된 指揮 體系를 가지고 가장 오래 유지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64) 물론 이러한 지위 유지는 保身의 측면이 아니라 시국의 필요성이라는 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